

교육부		보도반박자료 2021. 8. 30.(월) 배포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보도일	배포 즉시			
담당	고등교육정책과	담당자	과장 송근현 (☎ 044-203-6917) 서기관 신민영 (☎ 044-203-6809) 사무관 우성현 (☎ 044-203-6614)	

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2019년 12월에 공개된 계획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었습니다.

- 언론사명 : 조선일보 (신영경 기자) / 2021. 8. 30. [월]
- 제목
 - “교육부 대학 진단 발표 후폭풍 ‘평가 불공정’ ‘수도권大역차별’ 거센 반발”

〈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〉

- 교육부는 2019년 12월 확정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(이하 ‘2021년 진단’)를 실시하였습니다.
 - 2021년 진단은 2019년 6월 기본계획(시안)을 공개하고 대학 설명회를 거쳐 평가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으며, 평가 세부기준은 2021년 진단 편람을 통해 2020년 2월 대학에 안내하였습니다.

“지역할당제” 관련

- 권역별 선정 후 전국 단위 선정 방식은 2018년 2주기 진단부터 도입하였기에, 이를 최초 도입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 - * (참고) 권역: 전국 선정 비율 = (2018년 진단) 5:1 → (2021년) 9:1

정성지표의 객관성 관련

- (지표 구성) 2021년 진단 평가지표는 1·2주기 평가와 같이 학부 교육의 기본 여건을 평가하는 정량지표와 교육과정 등 질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정성지표로 구분되며, 이는 2019년 12월에 확정·발표하였습니다.
 -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등 일부를 제외한 교육부 모든 평가에서 정량지표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을 정성평가로 보완하고 있으며,
 - * 정성지표 배점 = (2018년 진단) 57/100점 → (2021년) 48/100점 (일반대학 기준)
 - 2021년 진단 정성지표는 3년(2018~2020년) 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적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전문성이 확보된 진단위원이 평가하였습니다.
- (위원 구성) 진단위원은 2020년 12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1,962명 중 평가 및 보직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270명을 위촉하고, 1개 대학 당 총 45명의 위원이 평가하였으며,
 - 대학 측 담당자 9명과 90분 간의 비대면 온라인 진단을 통해 대학의 소명사항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, 평가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
평가 세부 점수 비공개 관련

- 2021년 진단은 대학별 가결과 안내 시 13개 지표 및 18개 진단 요소 등 모든 배점의 평가 점수를 대학에 안내하였으며, 최종 결과 확정 후 추가로 대학의 지표별 강·약점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